



광주는 벌써 한여름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20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아이들이 전당 광장 안개분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근로시간 단축’ 연말까지 제도기간 6개월

당정청, 충격 최소화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다음 달 1일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6개월 동안 특별이 유예되는 제도 기간을 갖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총지출 규모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회의를 하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박범계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도 정착을 위해 행정지도 감독은 처벌보다는 제도 중심으로 하고, 금년 말까지 6개월간 제도(특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또 정부는 기존 5.7%인 총지출 증가율을 보다 확대,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와 규제샌드박스 조기 입법화, 창업법인 12만개 달성 지원, 고령층 노인 일자리 확대 등에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기획재정부가 내년 재정

전략 보고에서 5.7%보다 지출 증가율을 확대하겠다고 적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재정지출증가율은 7.1%, 내년은 5.7%, 그 이후 2021년까지는 5%대 초반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확정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정청은 중소·중견기업 및 영세 소상공인, 건설업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및 업종을 중심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노동시간 단축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소득분배 개선과 관련,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 대책을 다음 달 초에 발표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정청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의 비준동의 내지 지지결의안 채택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키로 했다. 또 정부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키로 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 “지역현안 속도감 있게 해결”

이용섭 민선 7기 광주시장 당선인이 19일 광주일보와 만나 도시철도 2호선, 군 공항 이전, 사·현대차 합작법인 설립 등 주요 지역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뷰 3면>

이 당선인은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 과정은 거치지만 현안에 대해서 오래 끌지는 않을 것”이라며 “행정은 오래 끈다고 좋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며, 리더는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관세·국제성장, 행자부·건교부장관, 18·19대 국회의원 등 행정부와 입법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지방행정을 해본 적이 없다는 우려에 대해 “시골에서 1등을 하

도시로 전학가면 6개월 정도 헤매지만 결국 1등에 올라선다”며 “산전수전 겪은 경험과 전문성, 혁신성에 삼고초려의 자세로 좋은 인물을 발굴해 경청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선 7기의 청사진을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로 정했다는 이 당선인은 지역 내 통합과 적재적소 인사에 방침을 짚고, 지역경제력을 배가시키는데 전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민선 1-6기와 달리 민선 7기 시장의 소임은 경계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당선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며, 기공식을 많이 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구조조정 내세워 지역대학 고사시키나

정부, 정원감축 권고·재정지원 제한 대학 잠정 분류

조선대·순천대·조선간호대·남부대·송원대 포함

전국 일반대 40개교 2단계 평가대상... 최종결과 8월 발표

호남지역 사학을 대표하는 조선대와 국립 순천대 등 광주·전남지역 주요 대학이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으로 잠정 분류됐다.

<관련기사 7면>

이 결과가 오는 8월께 최종 확정되면 신입생 모집과 대학 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대학구조조정 정책에 매몰돼 획일적 평가방식으로 지역 대학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잠정결과를 심의하고 86개 대학에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도록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

순천대, 조선간호대, 남부대, 송원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는 일반대 40개교, 전문대학은 46개교가 2단계 평가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번 기본역량 진단 평가는 대학을 자율개선대학, 기본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3단계로 나누는데, 자율개선대학은 최상위 평가를 받은 대학으로 간주된다. 1단계 진단은 최근 3년간 대학의 실적 자료를 활용해 교육 여건, 대학운영 건전성 등과 관련한 정량 지표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진단하는 정성지표에 기반한 진단 결과를 합산해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사실상 최상위 평가를 받은 자율개선대학들은 정원감축 권고 없이 2019년부터 일반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사용처를

정한 목적성 재정지원과 달리 지원금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전남대, 광주대, 동신대 등 광주·전남 대부분 대학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조선대, 순천대 등 전국 일반대 40곳과 전문대 46곳은 다음 달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진단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에 확정할 예정이어서 막판 구제 가능성도 열려 있다. 조선대, 순천대 등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밟고, 철저하게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교육부 등은 2단계 평가 대상 대학을 중심으로 서면·현장평가를 진행하고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 없이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 I·II)으로 분류한다. 최종 결과에서도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면 대학운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우선 역량강화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를

받게 된다. 단, 재정지원사업 중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고, 일부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의 경우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유형 I 대학은 재정지원이 일부, 유형 II 대학은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예비 자율개선대학의 경우에도 이의신청, 부정·비리 제재 여부 심사를 거쳐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되거나 빠질 수도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가에서는 “사실상 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꿨을 뿐 대학을 고사하는 정책을 펴는 것은 변함 없는 것 같다”며 “특히 낙후한 지역여건에서 대상의 위상과 기여도 등을 고루 감안하지 않고 특정 지역 대학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일보
강진 실종 여고생은 어디에
-숨진 친구 아버지와 무슨 일... ▶6면
러시아 월드컵 24일 멕시코전
-손흥민·황희찬 투입 골사냥 ▶20면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린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린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Sulwhasoo
BLOOMSTAY
VITALIZING CREAM
설린크림

Sulwhasoo